



(주)우성사료

천안연암대 축산장학금 전달



(주)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는 지난 2월 27일 천안연암대학에 축산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축산발전에 기여가 기대되는 축산계열 김진구 학생을 비롯한 5명에게 총 2백50만원이 수여됐으며, (주)우성사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후원할 계획이다.

(주)우성사료는 2005년부터 축산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0명에게 1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조성복 이사(제3사업본부장/천안공장)는 인사말을 통해 “축산의 밑거름이 될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학업에 더욱 정진할 것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주)우성사료는 앞으로도 산·학계간 협력체제를 이뤄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는 등 축산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을 할 것을 약속했다.

(주)에스씨에프

당진공장 준공



(주)에스씨에프(대표이사 김정인)는 지난 2월 2일 충남 당진군 순성면 소재 국내 최첨단 설비를 갖춘 신공장을 준공, 국내 사료 제조분야에서 더욱더 특별한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이번에 준공한 당진 신공장은 허가생산량(일산) 360톤 규모로 일반 양축사료는 물론 어류용 배합사료, 기타 특수사료 등 고품질 다품종의 배합사료를 제조·공급함으로써 시장을 선도하는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주)에스씨에프 당진공장은 국내 최초로 항생제 라인과 무항생제 라인을 설계단계부터 분리시켜 고객에게 보다 안전한 사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EP사료 생산에 있어서도 양건사료와 양어사료를 분리함으로써 고품질의 사료를 더욱더 신속하게 생산·공급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축질병 차단을 위해 철두철미한 환경위생 소

독관리 시설을 갖추었다.

한편 (주)에스씨에프는 더욱더 우수한 사료공급 및 철저한 A/S를 목표로 영업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그 일환으로 이상희 영업이사를 2월 2일부로 영입했다.

(주)에스씨에프는 지금까지 구축한 탄탄한 기업 이미지와 첨단 설비 및 신기술로써 국내 축산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료·동약·축산기자재 장기전망’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 자료문의 : (02)3401-8384

한국농어민신문사

‘선진축산국으로 도약을 위한 2007 축산 포럼’ 개최

국내 축산업이 선진 축산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 진단과 올바른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선진축산국으로 도약을 위한 2007 축산포럼’이 3월 5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국농어민신문사 주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농림부의 ‘2007 축산정책, 이렇게 추진된다’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축산정책의 핵심 사항과 개선방안’ ‘2007년 축종별 핵심 수급동향 체크포인트’ ‘축산업계 주요 현안과 해결방안’ ‘2007년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분야 핵심사업’

(주)에스에프

사무실 이전

(주)에스에프(대표이사 신정재)는 업무 효율화를 위해 3월 2일자로 서울 사무실을 안산으로 이전했다.

■ 주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10번지 태화빌딩 3~4층

■ 전화 : (031)480-8611~3, 080-022-5577

■ 팩스 : (031)480-8614



서울국제식품전 오는 4월 24일~27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

2007 서울국제식품전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KOTRA는 서울국제식품전(Seoul Food & Hotel 2007)이 오는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1,700개 부스에 900개사가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국제식품전은 국내 최초로 UF(국제전시연맹) 인증을 받은 식품전시회로 1983년 개최한 이래 올해로 25회를 맞는다. 올해부터 식품관련 기기 분야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국제식품기술전’으로 나눠 개최한다.

또한 국제관 부문을 영국의 올월드 익스비전스(Allworld Exhibitions)가 주최하는 푸드앤호텔코리아(Food & Hotel Korea)와 통합해 해외부문이 더욱 강화됐다.

올월드 익스비전스는 아시아 식품전시회중 최대 규모인 싱가포르의 FHA(Food & Hotel Asia), 홍콩의 HOFEX 등을 주최하고 있는 글로벌 전시전문업체다.

특히 해외참가업체가 50여개국 400여개사로 대폭 늘어났다. 스페인이 총 82부스로 가장 많고 중국 70부스, 미국 62부스, 이태리 45부스, 대만 32부스, 프랑스 24부스, 태국이 20부스 규모로 참가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미수교국인 시리아가 9개사 9부스, 쿠바가 5개사 4부스 규모로 참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식품전 국제관과 식품기술전의 경우 관련업계 종사자만 입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데이로 진행된다. 식품전 국내관은 전시회 마지막 2일간에 한해서 일반 관람객의 입장이 가능하다.

부대행사로 ‘식품산업과 소비자 안전 연계를 위한 식품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한국 식품산업의 글로벌화’ ‘이탈리아 와인 시음회’ ‘트랜스지방 함유 식품 안전성을 위한 공학적 접근’ ‘한국 식품의 세계 수출을 위한 방안 및 전략’ ‘테이블세팅 연출법’ 등 다양한 세미나와 이벤트가 마련된다.